

사설

‘판문점 선언’, 평화로 실현돼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감동과 흥분 속에 지켜 보았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공동선언’이 하나둘씩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남북 간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 공동선언’에 맞춰 문재인 정부는 미국·중국·일본과 다각적인 외교협력을 벌이면서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설비를 폐쇄하는 등 실천에 나서고 있다. 정상회담 다음날 대내외의 매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상세히 보도한 북한 또한 남북간 표준시 일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 해외언론 공개,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환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일정을 앞당기는 중이고, 이를 위해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11년 만의 남북 정상 간 만남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라는 목표를 향한 큰 걸음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9명이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향후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각에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세부적인 비핵화 일정이나 북한의 신뢰도를 둘러싼 의구심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계획과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문점 공동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에 대한 섬세한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인 아닌 만큼, 더욱 정교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근간이 될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판가를 날 것이기에, 한국 정부의 섬세한 중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어느새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의 위치에 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족번영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전 국민이 지켜보고 응원해야 한다.

직접 참여해 세상을 바꾸나가는 ‘리빙랩’

시론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사용자 참여와 현장지향성을 강조하는 리빙랩이 변화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특정지역의 생활공간을 설정하여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식이다.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뿐만 아니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리빙랩을 도입하여 기술과 사용자의 요구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추진,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대기업과 경제성장 중심의 산업혁신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사용자·지역·사회·주민·현장 중심의 혁신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리빙랩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와 산자부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이 리빙랩 방식을 도입해 기술의 현장 및 수요지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서울, 대전, 포항 등의 지자체에서도 시가 직접 주도하거나 지역별 혁신기관을 통해 사회혁신의 방식이자 지역 문제 해결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리빙랩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을 바

꾸는 100일의 생활실험’과 대전시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관리 리빙랩’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에서도 리빙랩이 추진되고 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협관의 ‘한국시니어리빙랩’,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의 ‘재난안전리빙랩’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학에서도 리빙랩이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 대전대 등은 교육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방법론으로 리빙랩을 도입하면서 대학의 새로운 미션과 역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장밀착형 교육체계에서부터 산학협력 활성화사업,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혁신사업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형 리빙랩도 진행되고 있다. 대전 ‘건너유’ 프로젝트와 성대골 ‘에너지 전환 리빙랩’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리빙랩 사례이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리빙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리빙랩을 통해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회혁신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리빙랩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많은 경우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해

결해야 할 문제와 대안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리빙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문제해결책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시민사회와 공급자인 전문조직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구축된다. 일종의 문제해결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빙랩 활동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성을 지닌 똑똑한 최종 사용자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참여해야 연구자·기업들과 지속적인 상호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야 특정 집단의 민원해결이나 대중적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다양한 리빙랩 실험과 함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리빙랩 개념은 계속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현장은 이론보다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리빙랩 활동과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과정을 통해 생활의 실제공간을 변화시켜나가는 사회혁신 모델로서 리빙랩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석탑추추

5월이 기대되는 이유

행사의 달, 웃을 일들만 가득하길

정신없이 시험기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더위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5월이다. 3주간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고대신문도 다시 발행을 시작한다. 달력을 펼쳐보니 5월은 각종 행사들이 빼곡히 일정을 채우고 있는, 여러모로 바쁜 달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대의 화두는 단연 대동제와 입실렌티. 초청가수 공연 라인업이 공개되고, 주류 판매와 관련해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면서 학내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떠들썩하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생생한 열기를 기록해나가겠다.

캠퍼스공간위원회,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지난호에서 본지는 이공캠 공간변경과 관련한 학교본부의 행정 처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구성원들의 공감을 끌어내려는 세심한 노력이 없으면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특히 공간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이제라도 학교본부와 학생 대표자들이 협의하는 캠퍼스공간위원회가 발족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부도 마냥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강빈 취재부장 shining@

석탑만평

주재민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부장	장강빈	FAX	02-928-0879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사회부장	김민준	메일 press@kunews.ac.kr
		학술·문화부장	류승현	핸드폰 010-3363-1947
발행인	염재호	편집국	02-3290-1683	페이스북 /kunews1947
편집인 겸 주간	허태균		02-923-4408	엘로아이디 @고대신문
인쇄인	김교준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국장	이민준	총무국	02-3290-1682	홍보관 2층

수레바퀴

‘나는 안 해도...’ 당연히 괜찮지 않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삼성중공업 조 선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책임자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사고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리해야만 했던 노동자의 안전을 그들은 왜 신경 쓰지 않은 것일까?

輕重緩急(경중완급) 일을 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고 흔히 말한다. 맡은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말은 중요한 업무만이 중요하던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중 중요한 일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상에 사소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밥 먹고, 씻는 등 간단한 일조차 나를 돌보기 위한 책임에서 나오는 일이다. 매일 하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는 우리가 ‘그 정도 일은 나는 안 해도 되겠지?’란 생각은 당연히 그만뒀어야 하지 않을까?

20대 대학내일 연구소가 2012년 수도권 4년제 남녀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8명은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문제해결법으로 정의됐던 팀플이 어째서 기피되는 것일까? 한국외대 HUFSon이 4월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최소한의 팀플 예절, 이것만은 지켜줘!’에 따르면 단

체톡방의 확인과 시간약속을 지켜달라는 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팀플의 예절로 소개돼있다. 맡은 일에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게 된다.

미국의 사업가인 록펠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권리에겐 책임이,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소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무가 따른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책임진다. 이룸에 있어 그 일이 사소하더라도 책임감이 없다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류승현 학술·문화부장 ryus@

종단횡단

어벤져스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 8일 만에 관객석이 600만을 넘겼다. 이는 그동안의 다른 어떤 외국 영화보다도 빠른 속도로, 휴일이 많은 5월을 고려할 때 1000만도 금세 넘지 않을까 싶다. 2018년은 마블 스튜디오가 창립 10주년을 맞은 해이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이언맨> 하나로 조출하게 시작한 마블 스튜디오는 이번엔 온갖 영웅들이 동시에 나오는 19번째 영화를 성공적으로 흥행시키면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만큼 마블은 이제 하나의 보장된 성공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할리우드를 대표하게 된 슈퍼 히어로의 시작은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코믹스 속 주인공들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이 뒤섞인 시대를 배경으로 ‘영웅’은 탄생했다. DC코믹스는 대중의 요구에 맞춰 슈퍼맨, 배트맨 등 다양한 영웅을 그려

냈고, 마블코믹스는 1960년대 코믹스 산업이 침체될 즈음 수많은 슈퍼 히어로를 탄생시키며 혜성처럼 떠올랐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과 같이 일반인이었던 이들도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은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할리우드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접목된 히어로는 탄탄한 스토리와 영상 기술은 물론, 액션맨, 데드풀과 같이 기존의 영웅상과는 확연히 다른 영웅도 내보내고, 로키와 같이 미워할 수 없는 적도 등장시키게 된다. 슈퍼 히어로는 결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은 자신들이 직면한 시대에 따른 경제적, 혹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서의 대리만족과 쾌감을 느끼기 위해 영웅을 찾는다. 과거의 코믹스 독자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의 영화 관객들이 그러하다.

마블 스튜디오는 2019년 <어벤져스 4>를 마지막으로 ‘페이스(phase) 3’를 끝내며 기존의 마블 영화를 이끌어간 주인공 다수와 새로운 영웅 사이의 세대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역 때문에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대사 “We are in the endgame”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의 묘수임을 나타내 <어벤져스 4>를 예고하는 한편, ‘페이스(phase) 1’부터 함께한 영웅들과의 작별인사를 미리 건네는 의미도 들어있진 않을까. 나에게 마블 시리즈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친구이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히어로물의 재미를 알게 해준 아이언맨과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날려준 캡틴 아메리카는 나의 멋진 영웅이자, 행복이었다. 비록 아직 그들을 떠나보낼 준비는 안됐지만, 그들이 내게 심어준 희망과 즐거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김도윤 기자 glossy@